



한 광 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 국민통합,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들어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사회에서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민행복을 생각하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갈등과 대립요인들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다원화, 양극화 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민통합은 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성원들의 상생 및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부여받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통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것이 가진 높은 추상성을 고려하면 결코 배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국민통합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통합 필요성을 주장할 때 종종 부연설명되는 것이 사회갈등 문제이다. 이해관계가 상이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과 대립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한 사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고 해결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 그렇다. 그간의 역사와 경험들을 살펴볼 때,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극심한 대립과 균열로 이끌었고, 이는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 갈등은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갈등해소라는 결과적 측면에서만 해석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단순히 사회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민통합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었다는 점은 그것의 고유한 정의가 내려질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정의에 기초하여 문제 진단 및 해결책 마련이 이어져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통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유념할 부분은 그것이 단순히 하나가 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구성원들로 하여금 획일적인 가치를 갖도록 요구하는 것도 아니란 점이다. 오히려 서로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같은 것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개성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뤄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조화로움에서 국민통합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근대화과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상처와 갈등을 완화시키고 국민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갈등과 대립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역량을 높이는 과정이 바로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방식이 요구되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

리 사회 전반의 역량과 관련된 것이라면, 접근법 역시 사회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노력들의 충격강도(impact)가 약하고 가시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국민통합은 눈에 띄는 몇몇 이벤트로 평가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평가할 사안도 아니다. 국민통합을 요구하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며 그 변화가 향후 특정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란 점에서, 사회의 성격을 국민통합에 어울리도록 변화시키는 시도들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뢰 증대를 통한 사회 체질 개선을 거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에 비해 사회 신뢰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관에 대한 공적신뢰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신뢰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내집단(in-group) 편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만의 이익에 전념하게 되고 따라서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이 높아진다면 구성원 간에 대립과 긴장이 완화되고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어 화합과 상생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사회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불신사회를 신뢰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특성을 개선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변에서 손쉽게 통합의 가치와 문화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사회의 체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소통을 기반으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또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방에서 체질 개선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 신체의 모든 부분을 고루 살피고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의 체질을 강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몇몇 분야나 문제요소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거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가 동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론 국민통합에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갈등, 대립, 균열 수준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 민·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국민통합을 향한 전 방위적 노력을 시작했다. 학계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통합에 필요한 어젠다를 발굴·확산시키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국민통합이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개발 및 집행을 통해 사회갈등 예방과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컨트롤 타워로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전략 차원에서 마련한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소통과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작은실천 큰보람 운동” 등은 민·관의 동참에 기반하여 추진함으로써 그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비록 따뜻해지는 속도는 느리지만 쉽게 식지 않는 구들장처럼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국민통합의 체질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